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4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 아함경(10월 14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행자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계승으로써 답하였습니다. "나이 29세에 출가하여 옳은 도 같아서도 이루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50여년 지났나니 삼매와 명행 갖추고 늘 깨끗한 계단은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기에 출가수행자가 있을 수 없노라. 바른 가르침과 계율에서 팔정도를 얻지 못하면 역시 초사문도 얻지 못하고 제이사문, 제삼사문, 제사사문도 얻지 못한다. 수발타라여, 그러나 만일 바른 가르침과 계율에서 팔정도를 얻으면 초사문, 제이사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의지해서 생사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출가수행자를 네 종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이 입멸에 앞서서 다시 장소를 파바성으로 옮기시어 거기서 만난 노예계급 주나의 공양을 받았는데, 주나가 출가수행자에는 몇 종류가 있는냐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자는 네 종류가 있나니 그 뜻하는 바 다른 것을

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설법하는 것은 배우는 출가수행자로 하여금 수행자의 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없는 청정행을 성취하려는 자는 차라리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는 큰 나무더미를 끌어난 거나 그 위에 앉거나 누워라. 그러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죽을지언정 목숨을 바친 뒤 악처에 이르러 지옥에 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계행에 무척 엄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계를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든여덟 번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쌀 한톨에 갖는 정성과 노고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 큰스님들도 시주받은 음식에 대해 매우 엄정했어.

요즘처럼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먹는 것이 곧 불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자가 지나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청정하게 계를 완전히 갖추고 좌선하는 일을 중지하지 말고 사만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반조하고 닦으라. 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끊고 노여움이 있으면 노여움을 끊으며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끊고 남을 가르치지 않는 태도가 있으면 그런 태도를 끊으며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끊고 아낌이 있으면 아낌을 끊고 질투가 있으면 질투를 끊고 아침이 있으면 아침을 끊고 속임이 있으면 속임을 끊고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것을 끊으며 나쁜 욕심이 있으면 나쁜 욕심을 끊으며 바르지 않은 견해를 지녔으면 바르지 않은 견해를 끊는 등 계를 성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출가수행자의 도리니라."

<아함경>은 부처님의 열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교의 근본교의는 물론 출가수행자를 비롯한 불자,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근본으로 삼아야 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부대중은 삼보를 단순히 불·법·승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고 가르침은 어떤 것이며 그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스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수행하는 구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참나를 밝히는 불자가 되려고 강조하는 응각 스님의 강설을 경청하는 불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한 구도열을 느낄 수 있다.

제삼사문, 제사사문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외도에는 출가수행자가 있을 수 없나니 만일 있다면 그것은 단지 외도의 스승이요, 빈껍데기 출가수행자나 사제일 뿐이다." 수발타라여 이 계승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열반에 들기 전, "자기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을 일이지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자기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할 일이지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분별해 알아. 첫째는 도를 행함이 뛰어나 이요, 두 번째는 도의 이치를 잘 설명하는 이요, 세 번째는 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이요, 네 번째는 도를 가장해서 떠러운 것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아함경>에서의 출가수행자와 수행자세에 대한 관점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이를 가슴에 새겨 수행의 체적으로 삼을만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가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보았습니

질의

“‘깨닫지 못한 생각’이 죽은 후 이어져 윤회”



현봉 스님(포천 보현사 주지)

[질문] 선수행을 위주로 하는 한국 불교에서는 삼법인과 마찬가지로 '무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하여 '진아(眞我)'를 열반의 네가지 덕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응각 스님]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삼법인 중 제법무아를 설하신 당시 우둔하고 몽매한 대중들에게 실제로서의 참다운 나인 '진아'라고 말할 수 없었지요. 제법무아라고만 말씀하시고 훗날 대중들의 지해가 성숙된 후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 진상, 진각, 진아, 진정의 열반사덕(涅槃四德)을 설했습니다. 또한 '진아'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를 깨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하여 범부는 물론 대소승의 성자까지도 망아(妄我)나 소아(小我)에 대한 인무아(人無我)·사람은 일정한 '아'가

없음의 원리를 깨쳐서 아집을 버리고 아공(我空)을 얻고 나면, 자아의 존재는 물론이요 자아 밖에 있는 만유제법도 일시적 가합(假合)에 불과하므로 범무아(法無我)·법에는 일정한 '아'가 없음의 원리를 깨쳐 법집(法執)을 버리고 법공(法空)을 얻게 됩니다. 즉 아공, 법공의 원리를 통달하여 구경열반에 도달하여 비로소 법신, 반야, 해탈의 삼덕이 구까지도 망아(妄我)나 소아(小我)에 대한 인무아(人無我)·사람은 일정한 '아'가

것과 같이 망아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진아의 묘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질문] 제법이 무아라면 윤회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설명해주십시오.

[응각 스님] 소승 독자부(續者部)에서는 외도의 심육지견 가운데 하나인 보특가라(補特伽羅人=數取趣, 衆數者)를 아의 별명이라 내세워 윤회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파불교인 독자부, 정량부(正量部), 경량부(輕量部)에서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주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기신론에 보면, 일체중생은 깨달은 부처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깨닫지 못한 생각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반복하여 끊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 마음이 죽은 후에도 이어져 상속된다, 즉 윤회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불교는 근본불교와 이후 발달된 사상 다 포함

[질문] 대승경전은 소승경전과 비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자들은 대승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각 스님] 근래에 들어 소승불교라고 낮춰보던 <아함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아함경>의 중요성에 대한 갖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후기의 대승불교는 일종의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승경전에서 설하는 바는 근본불교의 입장과 많이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되는 논리를 보이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의 특성인 이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만유가 다



박경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또는 '소승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가 공격하는 광풍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흔히 '불교'라고 하면 근본불교를 비롯해 그 후에 발달되어 흡수되고 포용된 모든 사상을 포괄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 포용력을 발휘하는데 기본으로 삼아야 할 한계지점으로서 '삼보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금강경> 구절의 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방편법이라는 편리한 용어를 써가며 불교를 호도하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이 실제로 포교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설악산 동해사 범우광명 기념

불영산대재행

일시 : 불기 2550년(200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전화 : 033)672-2900

- 주최 : 의륜 문도회
- 주관 : 동해사
- 후원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연합불교방송 · 전통의식교육원
- 협찬 : 불탑사 상원사 정각사 청정사 자비사 효심사 광진사 혜명사 천도암 백화사 서련사 삼성암 소림사 서원사 송암정사 봉황사 법성사 성락사 외불사 천왕서원 구인정사 인천혜명사 용천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동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예금)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물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함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예금)

지방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